



## 곤충의 세계로 가는 비밀문의 열쇠

《토박이 곤충에 관한 37가지 이야기》 펴낸 김정환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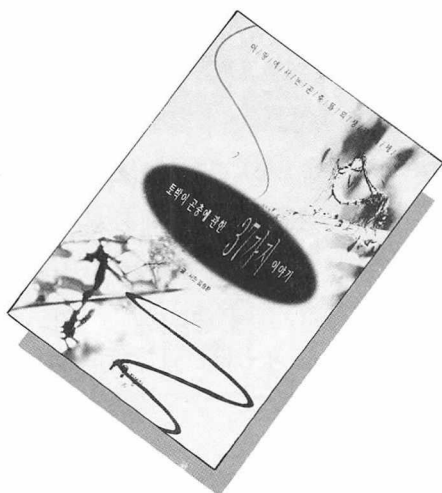
우리 인간의 것만은 아님을 깨닫는다.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은 백두대간을 따라 자유로이 넘나들며 살아왔던 동식물의 이동을 막아버렸다. 토박이 동식물의 멸종은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토박이 곤충들이 더이상 멸종되기 전에 자료를 남겨 두어야겠다는 김정환씨의 발길은 더욱 바빠졌다. 이제 초등학교 3, 6학년생인 두 아들과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은 잠시 또 뒤로 미룬다. 그렇게 해서 모은 곤충사진자료가 약3천종 10만 컷. 애써 찍은 사진자료들은 원색도감으로 정리할 만하다. 그래도 50만컷까지는 더 찍겠다. 개인자료가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잠자리 생태의 모든 것을 담은 《잠자리》와 어린이를 위한 《생태동화》가 올해 안에 더 나올 예정이다. 가능하다면 곤충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써볼 마음도 가지고 있다. 곤충을 가까이 하며 지내는 김정환씨에게 자연은 종교 그 자체다.

“우리 땅에 사는 생명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먼저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죠. 이 책이 곤충의 세계로 들어가는 비밀문의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김지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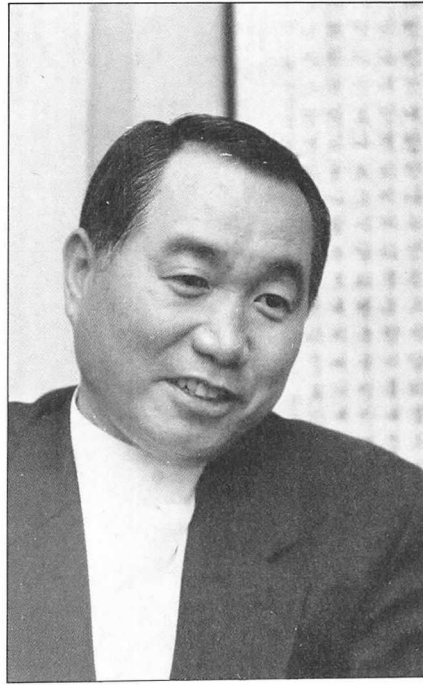
곤충의 세계도 인간과 똑같다. 성장의 아픈 과정이 있고, 짝을 찾아 헤매다 사랑을 하고 자식을 낳는다. 사랑을 얻기 위해 경쟁도 하지만 힘을 모으기도 한다. 사람살이와 똑같은 곤충의 세계를 들여다보려면 그들의 ‘눈’을 지녀야 한다.

지난 14년간 ‘곤충의 눈’이 되어 그 비밀스런 세계를 들여다보았던 곤충연구가 김정환(48, 고려곤충연구소 소장)씨가 얼마전 또 한편의 곤충이야기를 펴냈다. 《토박이 곤충에 관한 37가지 이야기》(지성사)가 그것. 《한국산 나비의 역사와 일본특산종 나비의 기원》《땅에서 하늘로》《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나라 백가지》에 이어 펴낸 생태 에세이다.

“이제 곤충들과 친구가 돼버렸습니다. 곤충의 언어도 알아들을 수 있지요. 촬영이 필요할 때는 원하는 포즈를 취해주시기도 합니다. 곤충을 인간의 입장이 아닌 곤충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들이 그렇게 생활하는지 알게 되지요.”

빨간 물방울무늬를 한 무당벌레는 화려한 보석처럼 예쁘지만, 그 호화로운 색이 사실은 자기를 해치면 이로운 게 없다는 일종의 경고색이다. 남방참파리는 수컷이 사랑을 구하기 위해 힘을 지듯이 잔뜩 먹이를 씹어지고 암컷에게 구애한다. 최고급 비단으로 고치를 만들어 겨울을 나는 노랑쨈기 나방, 가을 달밤에 구름이 빠르게 흐르는 사이로 멋진 현악을 연주하는 여치와 귀뚜라미 등 이 땅에 사는 곤충들의 생태비밀은 끝없는 실타래 같다.

지난해에 김정환씨는 ‘비무장지대 동식물’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1년 동안 DMZ에서 생활했다. 여기서 분단의 비극이



## 삶의 에너지를 불러넣는 책의 힘

《책 읽는 사람이 세계를 이끈다》 펴낸 김영진씨

“출판일을 시작하면서 왜 책을 만들고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 나름의 해답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살에 출판과 인연을 맺기 시작하면서부터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책을 읽고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정보를 메모해온 김영진(54, 새벗 발행인, 잡지협회 회장)씨는 그동안 책읽기에 관한 공부는 제법 많이 했다고 자부한다. 3백 권에 이르는 메모 카드와 수백권의 노트 들은 그 흔적이며, 최근 펴낸 《책 읽는 사람이 세계를 이끈다》(웅진출판)는 그가 30년 가깝게 해온 ‘책읽기 공부’의 결정판이다.

주로 청소년이나 직장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이 책에서 김회장은 우선 책이 지닌 힘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들려준다.

가령, 나폴레옹은 죽을 때까지 8천권의 책을 읽었다거나, 벤허에서 보여준 찰턴 헤스틴의 깊이 있는 연기의 힘은 모두 독서에서 비롯됐다는 예화들은 위대한 사람들의 삶의 에너지는 바로 독서에서 비롯됐음을 웅변해준다.

책의 힘은 비단 한 개인의 삶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노예를 해방시킨 《톰아저씨의 오두막》이나 한 나라의 국어를 풍성하게 하는 문학작품 등 책이 지니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 줄 예화가 한 둘이 아니다.

“공복감처럼, 갈증처럼 찾아오는 독서의욕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느닷없이 책이 읽고 싶을 때 동화든, 만화든, 시든 책을 바로 집어들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책읽기 습관을 기르는

지름길입니다. 다음으로는 좋은 책을 선택하는 것이겠지요. 이때 베스트셀러의 허상은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김회장은 책의 성격에 따라 다독과 정독을 겸해도 좋지만 책과의 만남은 기본적으로 또 다른 한 영혼과의 만남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한다.

“좋은 책은 언젠가는 독자들이 알아준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29살에 성서교재주식회사를 창립, 현재까지 1200여종의 책을 발간하면서 줄곧 제대로 만든 책만을 고집한 까닭인지 그가 만든 책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는 높다. 출판계 전체가 불황으로 시달릴 때도 그의 출판사는 매출이 신장했다.

지난 81년에 인수,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순수교양 아동잡지를 고수해왔던 《새벗》도 지난해부터는 흑자를 내기 시작해 김회장은 자신의 신념이 현실에서 결코 배반당하지 않음을 느낀다.

“좋은 책을 만드는 출판인들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그들이 만든 책이 널리 읽힐 때 우리 사회는 틀림없이 발전할 것입니다.”

일제시대 총독부 주치의의 사택자리였다는 회사 부지에 작고 아담한 개인 도서관을 하나 설립하는 것이 김회장의 앞으로의 꿈이다.

—박남정 기자





## 살아온 날들에 대한 고백록

《한 시골뜨기가 눈떠가는 이야기》  
펴낸 이만열 교수

인생관의 일면을 보여준다.

후반부인 '내가 만난 사람들'은 저자가 당대에는 소외되었지만 역사속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다산 정약용을 비롯,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들에 대해 쓴 글들을 묶고 있다.

"실천과 소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제 삶의 화두입니다. 설령 의를 위해 꺾박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저자는 80년대 후반 주위의 온갖 제의를 뿌리치고 연구실에 남은 사실을 스스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큰 소리를 내기보다 인간들을 이롭게 할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자식의 결혼 때 청첩장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강의에 귀걸이를 하고 들어오는 학생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검약'을 고집스럽게 실천하고 있는 이교수는 학교에서는 한국사학자로, 밖에서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기독교교수협의회, 외국인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벌이는 희년선교회 등의 단체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을 하고 있을 때가 가장 즐거움' 한 시골뜨기 출신 지식인의 모습으로,

— 허 연 기자

"이 책은 한 사람이 신앙과 민족과 역사에 눈떠가는 과정의 이야기이자 폐쇄적인 인간이 개방적인 인격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만열교수(58, 숙명여대 사학과)는 자신의 이번 수필집이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만큼 아직 열고 들어가야 할 삶의 부분들이 많다는 뜻이다.

대부분 자신이 원고를 정리해 출판하는 일반적인 자전수필과는 달리 이 책은 그가 실행위원으로 있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측에서 기획했다. 기독교에 관한 수필과 시문들을 모아 출판하기로 했던 출판계획이 '두레시대'로 인계되면서 살아온 여정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바뀌었다.

학자로서 본의 아니게 이론서가 아닌 수필집을 출간했다는 사실에 이교수는 아직도 '곤혹스럽다'고 고백한다.

"내가 벌써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볼 나이가 되었나 하는 의구심과 부끄러움이 앞서서 게 사실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내 뒤를 살아 올 후배들에게 '타산지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그건 아무래도 부끄러움에 대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책의 내용 중 전반부에 속하는 '내가 자라고 공부해 온 길'은 저자가 가난한 시골에 태어나 기독교 사상을 접하고 역사학자의 길을 걷게 된 과정의 이야기를, '쑥스러운 이야기'는 80년대 초반 외부의 압력에 의해 해직교수로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중반의 '병을 만든 시대'는 12·12와 5·18에 관한 단상들을, '빈방의 불을 끄고'는 검약과 실천을 중시하는 저자의



# 모여 “책”을 만들고 함께 “미래”를 열어갑니다

생각해보면 전문직의 세계는 작습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편집 취재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바늘구멍에는 실이 들어갑니다.  
그 실은 낙타보다 작고 가늘지라도  
훨씬 더 길고 질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전문직의 세계는 작고 좁을지라도  
그 생명력은 길고 오래갑니다.  
서울편집디자인스쿨에는 전문직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 소신을 갖고  
평생 하기를 원하는 사람,  
어떠한 일에도 부러지지 않을 사람,  
마지막에 참 잘했다고 웃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서울편집디자인스쿨에 모여  
책을 만들고,  
함께 21세기를 열어갑니다.

정규과정	주말 정규과정	DTP 특강과정	취재 전문반
정규과정 교육기간: 5개월 (정규교육 3개월, 컴퓨터편집 2개월) 오전반 10:00-13:00 오후반 14:00-17:00 아간반 19:00-22:00 각반정원: 30명 강의요일: 월·화·목·금	주말 정규과정 교육기간: 5개월 강의시간 토요일 15:00-21:00 일요일 10:00-16:00 각반정원: 20명 교육과정 정규반과 동일	DTP 특강과정 교육기간: 8주 강의시간: 19:00-22:00 각반정원: 20명 강의요일 주5일(월~금) 교육과정 Illustrator · Photoshop 전문과정 개설	취재 전문반 교육기간 : 여름 · 겨울 방학 강의시간 오전반 10:00-13:00 오후반 19:00-22:00 각반정원: 20명 강의요일 주5일(월~금)

취업처 : 신문사, 잡지사, 기업체홍보부 및 사보기획실, 단행본, 출판사, 학습지, 편집대행사, 협회 등

국내 최초 최대의 편집 교육기관  
한국 출판학회추천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매체협회지정교육기관  
**서울편집디자인스쿨**

문의(대) 672-1841,2 FAX 637-0441  
자동응답전화 704-4450(100\*)  
전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5번출구방향 100m